기신론의 핵심 내용 '여래장심'



지안 스님의 〈대승기신론〉 강설

직지사 한문불전대학원 원장

기신론의 핵심 내용은 중생의 여래장심을 설명하는 것이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하여 심진여문과 심생멸문의 두 문을 나누어 부처의 깨달음(覺)과 중생의 미혹(惑)을 설명한다. 본문에 "일심법에 의지하여 두 가지 문이 있다. 첫째는 심진여문이고 둘째는 심생멸문이다. 이 두 가지 문이 각각 일체법을 총괄한다. 총괄한다는 것은 이 두 문이 서로 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依一心法 有二種門 一者 心眞如門 二者 心生滅門 是二種門 皆各總一切法 此義云何 以是二門 不相離故)"라고 하였다.

여기서 말하기를 진여문과 생멸문은 서로 떨어져 분리될 수 없는 관계라 하고 두 가지 문이 각각 서로 일체 법을 총괄 포섭한다고 하였다. 이 말은 기신론의 요체를 일심이문으로 파악한 말이다. 일심(一心)이 바로 여래장심이다. 원효는 이 대목을 그의 소(疏)에서 이렇게 설명한다.

"열면 한량없고 끝없는 뜻이 되어 근본 종지(宗旨)가 되고, 합하면 이문일심의 법이 요체가 된다. 두 문 안에 수많은 뜻을 포용하여도 어지럽지 않고, 끝없는 의미가 일심과 하나가 되어 뒤섞여 있다. 그러므로 열고 합함이 자유롭고, 세우고 허무는데 걸림이 없다. 열어도 번잡하지 않고 합해도 비좁지 않으며, 세워도 얻음이 없고 허물어도 잃음이 없다. 이것이 기신론의 저자 마명의 기묘한 기술이다."

이렇게 기신론의 우수성을 나타내면서 일심이문의 근본대의를 찬탄해 놓은 것이다. 〈종경록(宗鏡錄)〉에도 일심이문에 대해 설해 놓은 말이 있다.

"일심의 법계는 두 문을 갖추어 포함한다. 하나는 심진여문이고 둘은 심생멸문이다. 비록 이 두 문이 모두 각각 일체 법을 총괄적으로 포섭하고 있으나 이 두 문은 항상 섞이지는 않는다."

진여와 생멸에 의해서 모든 존재의 사물이 나타나게 되지만 생멸에 의한 망념에 의해 차별이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망념을 떠나면 일체 차별의 경계는 없다. 변하거나 달라지지 아니하며 부서지지도 않으며, 오직 일심일 뿐이므로 이것을 '진여'라고 한다. 그런데 진여 곧 불생불멸하는 것이 생멸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내재해 있기 때문에 생멸과 얼마든지 화합한다. 이 이치를 불변(不變)과 수연(隨緣)이란 말로 설명한다. 심진여문은 중생심의 심체(心體)가 변하지 않는 측면을 말하는 것이고 심생멸문은 중생심이 인연을 따라(隨緣) 응용되는 측면이다. 불생불멸(不生不滅)하고 부증불감(不增不減)하는 진여가 일체 차별된 모습을 떠나 있지만 동시에 인연을 따라 생멸하고, 염정(染淨)의 차별상을 일으킨다.

중생이 곧 부처임을 강조
일심으로 '일진법계' 이뤄

〈능가경〉에 "적멸(寂滅)한 것은 일심이라 이름하고, 일심이란 여래장(如來藏)을 이름한다"는 말을 원효는 '적멸한 것을 일심이라 이름한다'를 심진여문이라 하였고, '일심이란 여래장을 이름한다'는 말을 심생멸문이라 해석하였다.

또 일심의 체(體)는 본각(本覺)이지만 무명을 따라 움직여 생멸하기 때문에 생멸문에서 여래의 본성은 숨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여래장이라 한다 하였다. 또 법장(法藏)의 〈기신론의기〉에서는 원효가 말한 일심을 여래장심이라는 말로 바꾸어 말했다. 이 여래장심(如來藏心)이라는 말은 진여와 생멸을 하나로 합쳐 부르는 말이다. 다시 말해 진여가 무명의 망연(妄緣)으로 말미암아 생멸로 전환되어 염정(染淨)의 차별상을 일으키지만 이는 체(體)에서 용(用)이 일어난 것이므로 체인 진여와 용인 생멸을 하나로 합쳐 부를 때 여래장심이라 한다는 것이다. 진여가 생멸이고 생멸이 진여인 체용불이(體用不二)가 일심(一心)의 본성이다. 마음 전체가 생멸상이 되어도 불생멸의 성품을 잃지 않는다. 이미 아려야식에서 설명하였듯이 진여의 불생멸과 생멸이 일심에서 하나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닌 관계로 통일되어 있는 여래장심이므로 이 여래장심에서는 중생이 곧 부처이고 또한 열반이며, 범부의 일심에 의해 부처와 보살이 평등해지며 같은 경지가 되어 다 같이 일진법계(一眞法界)를 이룬다는 것이다.

애착과 탐심, 보살심의 敵



시인 도정 스님이 풀어쓴 〈대장부론〉

⑰보살이 육신을 희사할 때

貪愛重者多得財時歡喜無量。不及菩薩捨身歡喜百千萬倍。菩薩以智慧悲心為體。為眾生故求於法身。菩薩捨身時樂勝於世人得轉輪聖王自在快樂。如刹利種若壞敵陣。能捨身命得生天上。捨身命時歡喜無量。菩薩以智慧悲心捨於身命時歡喜最勝。復過於彼。凡愚眾生為財利故在於敵陣捨於身命。成為解脫投巖赴火喪身無數。況復菩薩以智慧悲心為一切而不捨身命。愚癡眾生以愛著心為國土故捨於身命。菩薩智慧悲心為物而捨身命。何足為難。(탐애중자다득재시환희무량。불급보살사신환희백천만배。보살이지혜비심위체。위중생고구어법신。보살사신시락승어세인득전륜성왕자재쾌락。여찰리종약괴적진。능사신명득생천상。사신명시환희무량。보살이지혜비심사어신명시환희최승。부과어피。범우중생위재리고재어적진사어신명。성위해탈투암부화상신무수。황부보살이지혜비심위일체이불사신명。우치중생이애저심위국토고사어신명。보살지혜비심위물이사신명。하족위난。)

번역

탐욕과 애착이 심한 이는 많은 재물을 얻을 때 기쁘기 한량 없지만 보살이 몸을 희사하여 얻는 기쁨에는 백천만 배에도 이르지 못합니다. 보살은 지혜와 자비로써 근본바탕을 삼고 중생을 위하는 고로 구제함을 법신으로 삼습니다. 보살이 몸을 희사할 때의 기쁨은 세상 사람보다 뛰어나 전륜성왕의 자재한 쾌락을 얻나니, 찰리종(刹利種)이 적진을 무너뜨리는 것과 같습니다. 능히 몸과 목숨을 희사할 수 있다면 천상에 태어남을 얻거니와 몸과 목숨을 희사할 때의 기쁨은 한량없지만 보살이 지혜와 자비로써 몸과 목숨을 희사할 때의 기쁨이야말로 가장 뛰어나거니와 다시 그보다 큽니다. 범부인 어리석은 중생은 재물과 이익을 위하여 적진에서 몸과 목숨을 버리거나 해탈을 이룬다며 바위에서 뛰어내리거나 몸을 태우는데 나아가는 일이 무수합니다. 하물며 보살이 지혜와 자비로써 일체를 위해 몸과 목숨을 버리지 않겠습니까. 어리석은 중생은 애착심으로써 국토를 위해 몸과 목숨을 버리거니와 보살은 지혜와 자비로써 몸과 목숨을 버림에 만족하거나 어려워하겠습니까.

해설

보살이 중생을 위해 몸과 목숨을 버리는 일은 군대의 수장 계급을 이르는 찰리종(刹利種)이 적진을 무너뜨리는 것과도 같은 기쁨을 얻는다고 하였다. 보살의 적이 따로 있을까만, 만약 보살의 적이 있다면 바로 애착과 탐심일 것이다.

화엄경 〈보살문명품〉에 재수보살이 문수보살에게 게송으로 "지혜 있는 이는 능히 관찰할지니 일체의 존재는 무상한 것이라. 모든 법은 공하여 나라 할 것 없나니 영원히 일체 모양 떠나버렸기 때문이라네"라고 하였다.

보살은 부처님의 말씀을 단지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중생에게로 나아가 실천하는 이거니와 〈대장부론〉을 통해 제바라보살은 보살의 무아상(無我相)의 실천을 뛰어넘어 자신을 희생에 한량 없는 기쁨을 느낀다고 하였다.

어리석은 이는 명예와 재물을 위해 전쟁에 나아가 목숨을 버리거나, 깨달음을 얻겠다고 자신을 학대하는 고행을 하거니와, 지혜를 실천하는 보살이 중생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한다. 희생이라는 말도 제3자가 보는 시각이지 보살 자신은 희생이라는 말이 가당찮다. 그 희생은 희생이 아니라 한량없는 기쁨일 뿐이기 때문이다.



향봉 스님의
一切唯心造

새벽 명상

몸의 움직임이 불편할 만큼
이따금씩 아파야 한다.
병(病)이 있어야
건강의 소중함을 알고
배가 고파야
먹거리가 약인줄 안다.
헤어졌을 때
잃어버렸을 때
어둠이 무엇이고
아픔이 어떠한지
사람은 늙어서도 철이 든다.
사람은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떠나갈 수 있는 것
만날 수 있듯
헤어질 수 있는 것
오늘 새벽도
나무침대에 앉아
하늘의 별을 바라다보며
작별을 연습한다.
나,
언젠가는
한 점 바람이듯
흔적 없이 사라져 갈
허무의 존재임을.

생각에 지옥과 극락이 엉켜 있어 보살과 투사가 둘이 아닌 하나로 빛이 되고 어둠이 된다. 염기염멸(念起念滅)이 생사윤회(生死輪廻)를 불러들이지만 한 순간에도 한 생각에도 육도윤회는 작동을 멈추지 않는다.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꾸밈과 조작을 벗어버린, 드러냄과 감춤이 없는 삶을 살고 싶지만 습관의 고리는 생명의 무게처럼 질기고 길다.

늙음을 곱게 받아들이며 곱게 늙는 모습도 삶의 지혜이자 결과물일 수 있으나 백팔 번뇌는 주름살처럼 흰 머리카락처럼 촘촘히도 박혀 개운함을 멀리하고 있다. 비어있으면 편안하고 버리면 개운한 머묾이 없는 삶을 즐겨왔지만 돌이켜보면 절반은 흔들리고 절반은 헐떡이면서 행복과 자유 사이를 방황하는 나그네였다. 누구에게나 오늘은 소중하고 오늘의 주인공으로 당당하고 넉넉하게 살고 싶겠지만 오늘 이 순간에도 윤회(輪廻)의 세계는 멈춤이 없어 빛과 어둠 사이에서 지킬도 되고 하이드도 되는 것이다.

꾸밈없는 자연인이 선지식의 삶
비움으로 충만을, 버림으로 얻음을

새벽에 어제의 일을 돌이켜보면 까마득한 전전생(前前生)의 일인듯 하다. 만나고 헤어짐은 한 생각의 일어남과 사라짐이다. 한 생각 속에 과거, 현재, 미래가 담겨있고 한 생각 속에 설렘과 아쉬움, 웃음과 눈물방울이 떠다닌다.

주위를 둘러보면 이미 떠난 도반들이 많다. 한분 한분의 행적과 수행모습이 또 하나의 교과서처럼 싸한 아픔으로 다가온다. 언제부터인지는 모를 일이나 작별을 연습하며 질긴 모습을 보이지 않으리라 다짐하고 있다. 세월이 흐르면 남는 것은 빈손인데 삭신은 정직하게 온갖 병을 불러들인다. 온 몸의 나사는 느슨하게 풀려 작동의 멈춤을 예견할 수 있게 경고음을 곳곳에서 들려준다. 어느 사이 머리 허연 짐승이 되어 거울 속에서 웃고 있지만 추억의 숲에 일고 있는 바람으로 눈물방울이 가랑잎처럼 비눗방울처럼 떠다닌다. 글쎄, 산다는 것이 행복과 자유를 누리는 데에 방점을 찍고 있지만 해질녘 타작해보면 쭉정이 뿐인 검불 같은 비듬뿐이다.

알곡 몇 알 건져낼 수 없는 허무의 그림자만 빈터의 바람처럼 싸하게 온 몸을 휘감고 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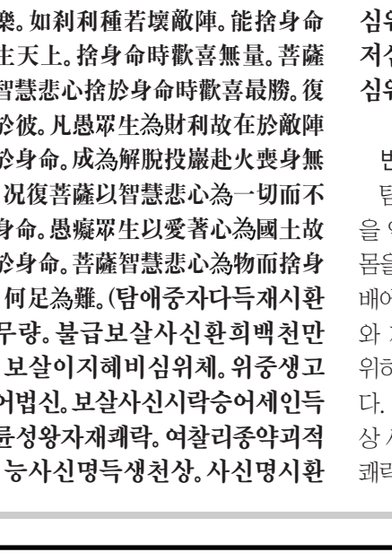
한 생각에 전생, 내생이 담겨있고 한 살면 글쎄 얼마나 살겠다고 모으고 챙기며 쌓아 두려하는지 죽음의 문턱에 이르면 허무의 그림자 같은 뼈저린 후회를 느낄 터이다. 생전에 나누는 기쁨, 비우는 개운함으로 자유를 연습하며 자연인의 행복을 누리는 지혜를 모아가야 한다. 드러내고 감출 것 없이 있는 그대로의 꾸밈이 없는 자연인의 삶이 선지식의 삶이다. 돈과 명예 주변에 멈춰있으면 진정한 의미의 행복과 자유를 누릴 수 없다. 벗어버리고 비워내고 버리며 떠나는 사람만이 해탈자의 편안함을 누릴 수 있다. 수행자라면 결코 쉽지는 않겠지만 틀과 형식에서 자유로워야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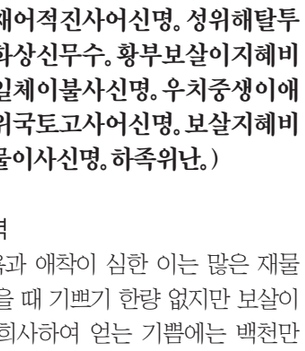
그러나 상식이 통하고 기본에 충실한 사람다운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람다운 사람이기 때문이다. 허울과 허세, 물욕과 집착에서 벗어나 머묾이 없는 자연인의 자유가 해탈이다. 고삐와 굴레를 벗어버린, 무위(無爲)의 삶이 자연인의 자유와 행복을 누리는 해탈자의 삶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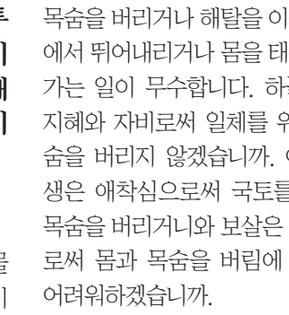
비어 있으므로 충만할 수 있게, 버림으로 얻을 수 있게, 이 새벽, 나무침대에 앉아 세상을 열고 있다. 빛과 어둠이 하나일 수 있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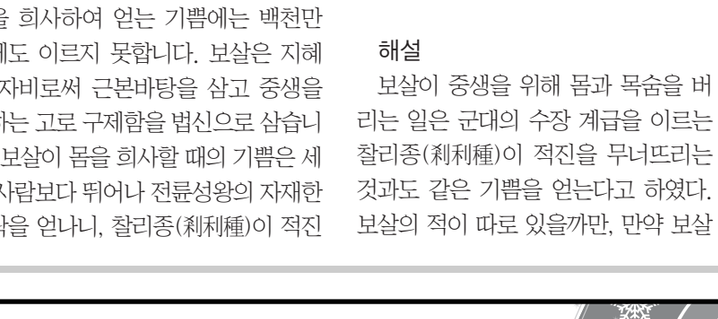
양지국악사

사찰전통 大법고 · 법당천도법고 · 태징 · 목어


대북


2자


태징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764-2159 / 010-5264-3906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 010-5264-3906
계좌번호 : 농협 221098-52-250376 조남양 www.yangjikukak.com

대한명인
제14-406호
대고제작

지리산 다슬기 眞 골드

지리산과 덕유산 일대의 자연다슬기와 국내산 약재로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선조들의 지혜가 듬뿍 담겨 있는 지리산 다슬기 진 골드로
생활의 활력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신장과 시력보호에 탁월한 효과를 지닌 다슬기를 주 재료로 하여 맑은 지리산 계곡물과 함께 각종 약재를 함께 넣어서 정성껏 달였습니다. 장시간 책을 많이 보시는 분들과 수행에 지친 분들께 원기를 복돋아 줄 수 있는 아주 좋은 선물 입니다.

제품문의 : 02)879-2007
입금안내 : 농협 1282-17-003433 (주)한메소프트
입금금액 : 125,000원 (무료배송)